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1월

“올해 농가소득, 3% 증가한 3천만원 예상”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 1천5백여명 참가 성료, 세계 속의 한국 농촌 활로 모색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에 1천5백여명이 참석해 우리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1월 2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06 발표대회’를 개최,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세계 속의 한국 농촌’이란 주제로 개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망대회도 전일 행사로 개최해 종합전망, 농업협상, 농가경제, 농촌복지, 식품안전성, 친환경농업 등의 주요 이슈와 품목별 수급전망을 발표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올해 우리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전망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전망대회가 우리 농업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전망대회를 개최한 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제 시장개방에 공세적인 자세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 최고

의 농업·농촌으로 가는 첫걸음을 이번 전망대회를 계기로 내딛자”고 역설했다.

이어 오세익 부원장은 종합전망 발표를 통해 “금년도 호당 농가소득(명목)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98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농가소득은 상승추세이며, 농가부채는 정체, 가계비 증가율은 낮아져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심화 예상

1부 ‘농업협상과 농가경제 전망’ 세션에서 권오복 연구위원은 “올해 대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은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아세안, 캐나다, 일본과 진행 중이며 미국과도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기 부연구위원은 “2006년 이후 농가소득은 연평균 3.7% 내외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농가소득이 4,118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부 ‘정책’ 세션에서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보다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해외시장개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대식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생산·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태곤 연구위원은 “쌀 중심의 직불제를 기능별로 통합하여 경영단위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민 2명 중 1명 농촌 이주 희망

3부 ‘식품안전성, 동북아 교역, 농촌과 환경’ 세션에서 최지현 연구위원은 “수입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이 책임지는 식품안전협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계임 연구위원은 “식품표시제도의 운영체계를 민간 인증체제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산물 관련 발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올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9,100억원, 2010년 1조 9,800억원, 2015년 4조 3,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중국쌀은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훈 연구위원은 “북한 농업은 단기적으로 식량 문제가 호전되나 제도 개혁 회피와 자본 부족으로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송미령 연구위원은 ‘도시민의 전원 지향 수요와 농촌공간의 미래상’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도시민의 2명중 1명은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고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2면에 계속)

“농촌에는 희망을, 연구원에는 활기를”

1월 2일 시무식 갖고 힘차게 출발



우리 연구원은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농촌에 희망을 불러 넣는 연구를 하는 한 해가 되길 다짐했다.

우리 연구원은 1월 2일 다산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농촌에는 희망을, 연구원에는 활기를 불러 넣는 한 해가 되길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다.

시무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올해도 DDA협상과 FTA 협상 등 국내의 농업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문을 열어 “앞으로 농정의 신뢰가 회복되어 농업인과 연구원, 공무원, 도시민이 상생의 대안을 찾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연말에 우리 연구원의 비전을 ‘도농상생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 받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여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희망을 전해주고, 연구원을 더욱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신년사 4면 게재>

구립 12월 30일은 다산홀에서 종무식을 가졌다. 종무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한 해를 회고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직원들을 표창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25년간 몸담았던 허길행 박사의 정년퇴임식도 가졌다.

종무식에서 우수직원 표창은 성주인 전문연구원, 최영운 연구원, 서정필 3급 관리원, 이경미 연구조원, 김혜영, 문한필 초청연구원, 원지연, 박혜진, 한경숙 위촉 연구조원이 받았고, 농림부 장관 표창은

박준기 부연구위원, 정학균 전문연구원, 박재홍 초청전문연구원, 김성일 위촉관리원이 각각 받았다

동북아 관련 보고서 일어 번역판 출판



우리 연구원 어명근 연구위원 등이 집필한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1차년도 보고서가 일본에서 「일·중·한 역내 농업협력의 가능성」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일본 VISTA, P.S. 출판사는 우리 연구원으로부터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보고서의 판권을 구입해 총 3권(상, 중, 하)의 시리즈 보고서를 출판할 계획을 갖고 1차년도 보고서인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를 「일·중·한 역내농업협력의 가능성」으로 번역·출판하였고, 2004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번역·출판된 「일·중·한 역내농업협력의 가능성」은 한·중·일 농업구조, 농업구조 변동 요인, 농산물 무역구조 분석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농촌경제」 학술지로 등재

우리 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 「농촌경제」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어 ‘농촌경제·사회’ 분야 학술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이번 「농촌경제」의 학술지 등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연구기관 가운데 3번째로 등재된 것이다.

우리 연구원이 1978년 6월에 창간한 계간 「농촌경제」는 그동안 총 110권을 발간하여 농촌경제·정책·사회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연구원은 이번 학술지 등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농촌경제」에 기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농촌경제」 담당: 이성복 ☎ 02-3299-4222, sungbok@krei.re.kr)

<1면에 이어>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박사는 “향후 에너지작물 생산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농림업에 유용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한우수수 가격 330만원대 전망

4부 ‘산업분야별 전망과 과제’ 세션에서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쌀 단경

기 가격은 수확기보다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0.5% 감소한 97만 5천ha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에서 정민국 연구위원은 “올해 한우수수 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낮은 330만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우의 조기·홍수출하를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진 채소와 과일 품목발표에서 김연중 부연구위원은 “올해 채소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요 채소수입량은 10~14%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올해 과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하고,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1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 단행”

연구조직 5센터 1실, 지원부서 3실 8팀 운영



최정섭 원장은 신입 부서장들에게 1월 18일 임명장을 전달하고 연구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 연구원은 1월 18일자로 연구부서를 5센터 1실로, 지원부서를 3실 8팀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연구원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정책연구를 선도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의 경영목표를 계획대로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T/F팀으로 운영하던 연구단을 상설팀으로 구성·운영하여 관련 연구의 종합조정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고, 조직간 연구 분야를 재조정하여 중복 연구업무를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농업구조연구센터와 국제농업연구센터는 날로 늘어가는 농업구조 및 국제협력 관련 연구 수요 증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더욱 연구의 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연구성과의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와 출판을 하나로 묶었고, 조직의 혁신을 위해 혁신전략팀을 기획조정실에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인사도 단행해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에 최지현 연구위원을, 농촌발전연구센터장에 박시현 연구위원을, 농업구조연구센터장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을, 국제농업연구센터장에 최세균 선임연구

위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 연구진 동정

△서종혁 선임연구위원은 1월 11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특강을 했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1월 20일 전북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농특위 지방토론

회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이란 제목으로, 최지현 연구위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정기환 연구위원은 1월 23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1월 12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 자원관리 방안’이란 제목으로, 1월 24일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주시 미래 농업의 핵심, 친환경 농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피터 로우 주한 호주 대사 내일

피터 로우 주한 호주 대사가 1월 31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최정섭 원장과 최세균 국제농업연구센터장을 만나 우리 나라와 호주 농업에 대해 상호 관심사를 나눴다.



매주 월요일, 우리 쌀 알고 먹는 날



우리 연구원은 매주 월요일을 우리 쌀 알고 먹는 날로 정하여 직원들이 브랜드미 맛기행을 하고 있다.

올 3월 수입쌀이 시판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매주 월요일 우리 쌀 알고 먹는 날로 정하고 브랜드미로 밥을 지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1,200여 종의 브랜드 쌀이 생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쌀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 지난달 탑라이스(Top Rice)를 시작으로 우리 쌀 알고 먹는 행사를 갖게 되었다.

지난 1월 첫 주엔 전남 해남 옥천 농협에서 생산한 ‘한 눈에 반한 쌀’로 밥을 지어 제공했고, 둘째 주엔 충남 서산 간척지에서 생산한 ‘기러기 오는 쌀’로, 셋째 주엔 충남 태

안의 ‘황금빛 노을쌀’로, 넷째주에 강원도 철원의 ‘철원 오대쌀’로 밥을 지어 제공하여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브랜드미로 밥을 지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미의 특성과 재배법, 품종 설명 등도 곁들여 게시하여 직원들이 우리 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에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길

최정섭 원장

병술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났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금년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높은 5 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수출 목표는 3,000억 달러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함께 투자가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경제도 활력을 찾아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신뢰받는 일류 연구기관 지향

우리 농업은 올해도 심화되는 시장 개방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개방은 하되 감내할 수 있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예상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국민적 합의 하에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소득보전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서 농업인들을 안심시킬 방안을 찾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입니다.

농림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성 보장체계가 확립되길 바라며,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정의 신뢰가 구축되어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생의 대안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연구원의 비전을 '도농 상생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강점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확보되어 있는 점입니다. 또한 연구원 출신으로 각 대학에 계신 분이 100 명이 훨씬 넘어 농업정책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약점은 내부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양적 평가 체제가 가지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회 요인은 농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연구원에 대한 위협 요인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와 인재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청사 이전에 따라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5대 핵심목표 실현해 나갈 터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5대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장중심의 연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둘째는 품질 지향적인 연구 관리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직인사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넷째는 고객최우선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본원에서는 2006년도 경영의 중점과제를 보고서의 품질제고에 두고 기본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관리 및 평가제도는 일하기 쉬운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금년에 예정된 독립법인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농촌정보문화센터

는 올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임무를 정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여 운영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S와 업무프로세스 개편을 같이 추진하여 모든 업무가 KMS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책무 다하도록 노력

우리에게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농업 전망대회 등 국내 행사와 동북아농정연구포럼 등 국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원의 연구와 행정 업무를 부원장님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위임 전결 규정을 대폭 개정하겠습니다. 원장은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연구결과의 홍보, 유관기관의 협력, 국제협력 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저는 금년에 지시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정불신이 심하다는 것은 농촌 정보문화센터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농촌에는 희망을 연구원에는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국책 연구기관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고려한 한·미 FTA 돼야

권 오 복 연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미국과 의견이 조율이 되는 대로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계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1월 26일 현행 146일로 되어 있는 스크린 쿼터일수를 오는 7월부터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이 한-미 FTA 추진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사항들이 대부분 해결된 셈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한·미 FTA가 수면위로 떠올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FTA 추진 가능성 높아져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농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FTA가 우리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며 DDA 농업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총 경지면적은 1억 7,600만ha로서 우리나라의 105배이다. 미국 농가 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약 29ha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58배나 넓다. 광활한 경지면적을 바탕으로 미국은 대두, 옥수수, 쇠고기, 닭고기 등 15개 품목에서 세계 생산에서 1위를 차지한다. 돼지고기,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등의 미국의 생산은 세계 2위이다.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639억달러로서 우리나라보다 32배나 많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두(67억달

리), 옥수수(61억달러), 밀(52억달러), 쌀(12억달러) 등 곡물류와, 쇠고기(41억달러), 닭고기(18억달러), 돼지고기(17억달러) 등의 축산물, 포도(6억달러), 오렌지·사과(4억달러)등 과일류, 그리고 상치(3억달러), 토마토(2억달러) 등 채소류이다.

축산물과 과일류 큰 피해 예상

2004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교역 규모는 30억 달러로서, 수입 27억달러, 수출 3억달러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농산물은 밀(2억 7,400만달러), 옥수수(7억 8,200만달러), 대두(3억 7,400만달러), 오렌지(1억 4,300만달러), 사료(1억 2,900만달러), 쇠고기(8억 9,000만달러(2003년 기준) 등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농산물은 배(1,544만달러), 김치(120만달러), 화훼류(237만달러), 인삼류(643만달러), 면류(5,935만달러) 등이다.

미국 농업의 규모나 잠재력 면에서 볼 때 한-미 FTA는 한-칠레 FTA 등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비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사과, 포도 등 과일류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증가하면 소비대체효과에 의해서 감귤 등 국내 과일소비가 감소해 생산이 적지 않게 감소할 것이다.

이미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옥수수, 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지만 일부 곡물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487%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대두의 경우 2004년 기준 국내 생산액이 4,300억원인데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국가 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추진이 불가피할지라도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쌀과 같이 식량안보 면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매우 높은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관세 감축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미국이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미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과 설탕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목화, 땅콩, 연초 등과 같은 민감품목은 18년이라는 유례없는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상 전에 확실한 대책 세워야

세계무대에서 시장개방을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미국조차도 자국보다 농업경쟁력이 앞선 국가와 FTA를 추진할 때는 철저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협상개시부터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을 미국 측에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FTA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서는 생산 감소 등을 통해 다소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동시다발적 FTA와 DDA 타결에 대비하여 구조개선 등과 같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업내부에서도 DDA 농업협상이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품질 경쟁력 제고와 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시장에서 국산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비자가 선택해주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파는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DDA 농업협상 전망

임 소 영 연구원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1월부터 열려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가 발표한 올해 DDA 일정에 따르면 농업협상은 1월 23~27일 주간을 시작으로 4월까지 매달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1월 27~28일 양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 DDA 주요국 각료들이 참석하여 DDA의 세부 원칙 도출을 위한 협상절차를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오는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남은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당분간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세부원칙 도출은 쉽지 않아

올해 4월 말까지 농산물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의 세부원칙이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도 남은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에 대해 주요국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회의적 전망의 가장 큰 이유다.

관세감축은 최상위 구간에 적용될 감축률이 핵심인데, 이를 두고 미국은 평균 90%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60%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G-20가 75% 감축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면서 EU를 압박하고 있지만, EU는 수출보조금 철폐일시까지 확정된 마당에 시장접근분야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EU의 핵심 회원국인 프랑스는 현 수준의 EU 제안만으로도 공동농업정책의 개혁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의 개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EU 협상단의 추가적인 양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기본 골격 수준에서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다. 미국과 G-20 등 수출국들은 민감품목으로 전체 농산물 관세 세번의 1% 이하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EU는 8%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G-10은 내심 10% 이상의 민감품목을 바라고 있다.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결과는 민감품목이 전체 농산물의 2%만 되어도 관세감축에 의한 시장개방 효과가 상당히 상실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들은 가능한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줄여 자기들의 주요 수출 농산물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입국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핵심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려고 할 것이다.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선정의 지표조차 합의되지 않았으며, 대우는 말할 것도 없다. 개도국의 특별수입구제조치도 원칙적인 선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감축률이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신규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 미국과 EU가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처럼 산적한 난제들이 불과 3개월여의 협상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져 4월 말 세부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4월 말 세부원칙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급진전 가능성은 남아 있어

그러나 어렵기는 해도 7월말까지 세부원칙의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DDA 협상은 남은 핵심 쟁점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한 쟁점이 해결되면 나머지 쟁점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감품목의 수가 합의되면 이는 곧 민감품목의 대우가 합의되었음을 의미한다.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가 합의되었다는 것은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률에서도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에서 혜택을 받는 품목이므로 일반품목의 관세감축률에 대

한 합의 없이 민감품목의 대우가 확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이 풀리면 개도국의 특별품목이나 특별수입구제조치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국내보조 감축률도 주요국간 큰 이견 없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4월 협상 결과가 DDA 전망 시금석

결국 미국과 EU, G-20 등 농업협상을 이끌고 있는 주요국들이 연내 DDA 타결을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농업협상의 급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치적 타결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오는 2007년 6월말로 설정된 무역중진권한의 만료 시한을 고려하여 EU와의 절충에 적극 나선다면 다소 늦어지기는 해도 연내 DDA 종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EU의 타협안을 기초로 G-20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추가된 내용의 세부원칙이 7월말까지 도출된다면 9월이나 10월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3개월의 검증기간을 거쳐 연내 DDA 종결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해를 넘겨 2007년 3월에 DDA가 타결되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4월 농업협상은 DDA의 연내 타결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4월 협상에서 가시적인 타협의 발판이 만들어진다면 DD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지 않다면 연내 DDA 타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부원칙 협상 전망에 관계없이 향후 전개될 이행계획서 제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지정은 국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자 단체들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본, 대중국 채소 개발수입 급증

일본의 2005년도 신선채소 수입량은 107만 1,027톤으로 드디어 100만톤을 넘어섰다. 여기에 냉동이나 건조채소를 합치면 대략 300만톤에 달한다. 그래서 일본은 소위 채소 수입 300만톤 시대에 들어섰다고 한다.

수입채소 중에서 중국산이 62%를 차지한다. 채소의 대중 수입이 급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의 수요 사정이다. 중국 현지 수출기업의 판로를 보면 대부분이 일본의 수입상사를 통해 외식산업, 중식산업, 식품산업에 판매하는 것이 주류이다.

이들 업체는 일본 국내의 과당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가이면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도시락 업체의 경쟁도 심화되어 식재료의 대부분이 수입농산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소비처의 수요를 바탕으로 일본 수입상사와 유통업체가 중국을 비롯하여,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개발수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중국 국내에서 대일 수출용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파는 1990년대 초 일본의 한 수입상사가 산둥성에서 생산을 시작, 90년대 말에야 일본 시장에 팔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 2001년에는 일본이 셰이프 가드를 잠정 발동할 정도였다. 일본의 종묘회사나 수입상사, 그리고 농업관계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치밀한 기술지도에 의해 대일 대파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중국의 농업구조조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곡물의 생산과잉이 심각해졌고, 이것이 채소와 과일 등 다른 농산물에도 파급되었다. 중국 정부는 생산과잉을 수출로 해소하고자 했다.

일본 수입상사와 유통업체 등이 기술지도

또한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시장개방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WTO 가입이후 종전의 유망 수출품목이었던 옥수수 등의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 대두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두, 옥수수, 소맥 등 토지이용형 농산물에서 노동 집약적인 채소, 과일, 화훼 등으로 전환하여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수입수요와 중국의 수출압력의 영향으로 채소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의 무역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의 수입채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대일 채소 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은 동부 연안지역이다. 산둥

성을 비롯하여 장쑤성, 상하이시,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등이 중요한 수출 거점이다. 산둥성의 칭다오항, 푸젠성의 샤먼항, 상하이 등은 해상 선편이 좋은 편이다. 예를 들면 칭다오항의 경우 검역 등을 포함해 1주일 정도면 일본에 도착하고,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현지 공장에서 일본 소비지까지 냉장된 채로 운반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출품목의 개발을 보면 최근에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당근은 전에는 거의 생산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산둥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다. 은행도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흰 파를 먹지 않아서 중국에서 파는 푸른 파가 보편이었는데, 1990년대 초에 일본의 수입상사가 흰 파를 들여와서 이랑을 높이는 등 기술지도를 거쳐 정착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입이 채소수입을 주도

개발수입에서는 종자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종묘회사가 큰 역할을 했다. 현지 종자 판매점에 일본 종자를 판매하고 있다.

개발수입을 소개할 때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우엉이다. 우엉은 중국 원산이지만, 중국인들은 현재 거의 먹지 않고 현재는 한약에 사용하는 정도이다. 이것이 대량으로 재배되게 된 것은 역시 일본 수입상사가 1990년대에 산둥성에 들여와 대규모로 재배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중국 산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노임이다. 산둥성 등 농촌 지역에서는 일당 20위안에서 25위안(2,400원에서 3,000원 정도)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최근 수출 품목이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있다. 냉동채소로는 유채가 많이 늘었다. 시금치에 잔류농약이 검출돼 일시 수입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외식산업 등에서 접시 장식용으로 청경채와 유채가 주로 소비되고 있다.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은 녹차, 바나나, 생표고, 건표고, 곤약, 매실, 굴 통조림, 과일 등이다.

특히 곤약은 중국에서도 쓰촨성, 산시성, 충칭시 등 내륙지역에서 생산된다. 중국인들은 곤약을 거의 먹지 않지만 수출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료에는 99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제품 가격이 낮아 최근 2, 3년 사이에 수출이 급증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의 대중 채소수입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녹색식품과 같은 고품질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원료용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품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개발수입'이다. <김태곤 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총권 500호 돌파”

연구보고서 39권 발간 완료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기본연구사업을 추진, 연구를 마친 연구보고서 39권을 최근 발간해 총 518호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연구보고서 총권 500호 필자는 김창길 연구위원과 서성천 전문연구원, 김태영 연구위원이고, 보고서명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이다.

우리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연구총서 1권, 연구보고서 25권, 연구자료 4권, 워킹페이퍼 1권, 정책연구보고서 1권, 기타연구보고서 7권 등 총 39권이며, 보고서명과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연구보고서〉

- △기상 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용선)
- △우유의 수급 전망과 조절 방안(송주호)
-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서진교)
- △아세아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 전략: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심(김경택)
-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정기환)
-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 방안(박시현)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김창길)
- △임업 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장철수)
-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김병률)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 전략(권오복)
-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호)
- △농산촌지역혁신체계(RIS) 기반 구축(송미령)
-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방안(마상진)
-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강창용)
- △휴경농지의 실태와 정책과제(김수석)
-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오내원)
- △중국의 농산물수급 증장기 전망(어명근)

- △할인점의 농산물 구매행태 분석과 전망(서성천)
-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박석두)
-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계임)
-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 부문의 과제: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어명근)
-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성주인)
-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김수석)
- △고랭지 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신용광)
-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유승우)

〈연구총서〉

-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이재욱)

〈정책연구보고서〉

-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최지현)

〈연구자료〉

-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김연중)

- △2004년도 식품수급표(이계임)
- △일본 생산자 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정부의 유통정책 연구(전창근)
- △성공적인 농업 CEO의 농업전략 분석(김영생)

〈워킹페이퍼〉

- △농산업의 계열화 유형별 비교분석: 양돈산업을 사례로(정호근)

〈기타〉

- △사과 생산관측 개선 방안 연구(김경필)
- △2005 농업관측 정보 시스템 통합 및 효율화 연구(이용선)
- △Agriculture in Korea(김용택)
- △농업 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 방향 연구(김배성)
- △농업 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5 운용·개발 연구(김배성)
-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개발 연구(김배성)
- △2005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영사업(어명근)

▣ 연구원 인사

- △(보직)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 최지현 연구위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박시현 연구위원, 농업구조연구센터장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국제농업연구센터장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크리스토퍼 풀처 교수 초청, KREI 세미나 개최



풀처 교수는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우리 연구원은 1월 13일 미주리 콜럼비아대학교 크리스토퍼 풀처 교수를 초청해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풀처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이란 제목으로 미주리대학교의 농업정책연구

소와 산하에 있는 농촌사회정보센터의 역할을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흩어져있는 각종 자료의 통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였다.

농업정책연구소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통계자료와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통합하

여 국가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정책 결정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GIS의 통합은 소규모 지역에 특화된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풀처 교수는 일러 주었다.